

시민이 건강한 행복도시 전주 만든다

전주시, 보건의료 취약분야 지원 등 추진

전주시가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보건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금연구역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모든 시민이 건강한 행복도시 전주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올 한해 '시민이 건강한 행복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보건의료 취약분야 지원 △생애과정·생활터별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 실천 확산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등에 중점을 둔 보건의료사업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올해부터는 기간 생후 6개월~12개월까지만 지원되던 영유아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의 지원 대상이 59개월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방법이 기간 보조금 형태 지원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수기조정을 통해 심야병원 운영에 따른 보상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오는 2월부터는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을 포함한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에 포함될 예정이다.

보건소는 현혈자에게 현혈증서를 기증받아 형편이 어렵고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전달하는 '현혈기증함' 사업도 추진한다. 현혈 기증자에게는 1장당 1만원 정도의 은누리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주시민들을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도 한 층 강화된다.

보건소는 시민들이 스스로 방역소독을 통해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지난해 시범운영한 방역소독 장비 무료 대여사업과 방역약품 지원사업을 올해는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와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고위험부서 근무자),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 만40세 이상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한 후 양성자에 대한 치료관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출산장려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이에 따라 그간 단태아 기준으로 출산 시 자녀수에 무관하게 10일씩 신생아와 산모 돌봄을 지원하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첫째아는 10일, 둘째아는 15일, 셋째아는 20일까지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수혜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17일 전북생물산업진흥원에서 농업트렌드를 알면 농업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열린 가운데 행사장을 찾은 김승수 전주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라 일부 심각한 인권유린이 우려되는 보호의무자에 대한 입원(속칭 강제입원)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강제입원의 경우 그간 보호자 2명 이상의 동의와 전문의 입원진단이 있으면 가능해 매년 전국에서 13만명 정도가 강제입원됐으나 앞으로는 서로 다른 정신진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입원소견이 있어야 가능하다. 입원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시행되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명칭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된다.

보건소는 또 올해 시민들에게 맞춤

형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찾아가는 앱' 프로그램을 대중화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 및 체육시설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장소에 비콘(스마트폰 근거리 통신장비)을 추가 설치해 시민들에게 생애주기별, 수혜자 맞춤형 보건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보건소에 서는 올 한해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확대해 시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의료지원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없는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수주 댓가로 뇌물 받은 공무원 징역

전주시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7일 조명장치 업체로부터 납품업체로 선정해주는 댓가로 뇌물을 받고 다른 업체에게는 직원 휴가비를 요구한 혐의(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요구)로 기소된 충남 모시청의 5급 공무원 이모씨(58)에게 징역 1개월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2010년 5월 고향 후배가 사장으로 있는 조명장치 업체로부터 관급자재 납품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씨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는 시에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조명장치를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

다. 심지어 이씨는 2015년 6월 물탱크 제조업체 대표에게 납품업체 선정에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실무 공무원들에게 휴가비를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직후 이씨는 공무원징계위원회로부터 직위 해제됐다. 김선용 판사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무원 업무와 관련해 1천50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행위는 공무원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음주운전 사고 이후 경찰에 폭행 가한 50대 징역

전주시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7일 만취 상태로 농로에 빠지는 사고를 내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정모씨(5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5년 7월 2일 오후4시께 전북 김제시 용지면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본인의 1t 화물차를 몰다 농로에 빠졌고,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술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경찰관에게 마구잡이

로 주먹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지어 정씨는 그해 6월 지인을 상해입혀 신고 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드러났다. 김선용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부안해양경비안전서, 더미 이용해 조류 관측 실시

부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조성철)가 해상 표류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해상인 남서 크기의 더미를 이용해 조류 관측에 나선다. 부안해경은 17일 연안 해상사고 수색 구조의 효율화를 위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해상에 더미를 빠르게 관측하는 방법으로 해류와 조류를 조사할 계획을 밝혔다. 관측에 활용되는 더미는 키 170cm, 몸무게 70kg의 성인 남성과 비슷한 신체 조건으로 무전기 형태의 위치 발신

장치가 달려 있다. 이번 더미 활용 조류 관측은 해양사고의 95% 이상이 연안 해역에서 발생하고, 전북 해역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아 해류와 조류 등의 방향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추라자와 표류자 등을 수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해경은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최우선인 만큼 다양한 표류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설명절 맞이 대청소 나서

한옥마을·덕진공원 등 주요 관광지 정비

전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으로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시작했다.

전주시는 17일 오후 2시부터 공무원과 자원단체 회원, 일반시민 등 3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 동별 청소취약지를 정비하는 설맞이 일제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날 시는 설 명절기간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터미널과 극장가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과 한옥마을·덕진공원 등 주요 관광지는 물론, 원룸 밀집지역과 이면도로, 공한지 등에 방치된 각종 생활쓰레기를 말끔히 정비했다.

또한 시는 이날 대청소와 함께 현수막과 어깨띠, 전단지 등을 활용해 각종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명절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를 설맞이 청결주간으로 정하고, 기동차량과 기간제근로자, 압류트럭, 집게차 등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시가지 곳곳에 적치된 불법폐기물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또 설 연휴기간 환경관리원 및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의 근무시간을 조정해 청소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완산·덕진구정에서는 청

소상황실을 운영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순찰 및 기동차량 반도 확대·운영키로 했다.

특히 시는 설 명절 당일 환경관리원 휴무에 따른 한옥마을 청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시 직원과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자체 청소기동반을 기동,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가로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민족대명절인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아름다운 고향, 전주의 품격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청소체계를 유지해 깨끗하고 쾌적한 명절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연휴기간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준수 등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

부부싸움 도중 화 모이겨 분신한 남편 형사 입건

전주 완산경찰서는 17일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에 몸에 불을 지른 남편 최모씨(48)를 형사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새벽 2시 5분경 전주시 삼천동 소재의 본인의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도중 화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에 몸에 등유를 부은 후 일회용ライター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해 최씨는 전신 2도 화상을 입었으며 몸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노력하던 아내 김모씨(49)도 양손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최씨를 형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